

1. 아시아연합의 가입 자격 요건

1-1. 가입국의 자격 요건

- ① 아시아 연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아시아 연합의 설립 취지인 'OPA'와 뜻을 함께하는 국가
- ② 아시아 연합의 'Dream Train of One Asia'(DTOA) 사업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국가
- ③ 아시아 역내 국가 및 아시아와 지역적으로 밀접한 국가

앞서 말한 ①과 ②가 우리가 제안하는 아시아 연합의 가입 자격 요건이다. 이러한 가입 조건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연합의 설립 취지부터 설명하려 한다. 아시아 연합은 첫째, 하나의 아시아를 위해 둘째, 아시아 지역내의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셋째, 아시아 국가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구이다. 다시 말해, **One · Peace · Accompany growth 'OPA'가 아시아 연합의 설립 취지이자 최종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취지와 맞는 진정한 아시아 연합을 만드는 데에는 3가지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첫 번째 장애물은 아시아가 너무 넓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정치·문화적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 장애물은 위의 두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통점'을 추구한다면, 연합체가 지역적인 성격으로 한정되고, 이는 진정한 아시아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각국의 공통된 사항으로 연합체를 구성하기 보다, 각국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하면 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끝에 내린 결론은 '차이점'은 그대로 두고 연합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연합하여 'OPA 아시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아시아 연합 분야를 '문화 · 경제 · 안보'로 나누고, 국가들이 원하는 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았다. 즉, 'OPA'를 이루기 위해 국가의 경제·정치·문화 수준과 상관없이, 아시아 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입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러나 첫 번째 자격 조건만으로는 가입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포함시켰다. 그 중 'Dream Train of One Asia'란, 아시아 연합국들이 진행하게 될 아시아 열차 관광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시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아시아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요건은 아시아 연합이 글자 그대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 위한 명목이다. 즉, 아시아 연합에는 아시아로 지칭되는 지역내의 국가들과 아시아에 가까운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가입 요건이 연합 국가들을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면 나머지 두 요건은 '보이는 끈'이 될 것이다.

1-2. 통합 지역 범위

(중·일) + 한국 + ASEAN + 호주·뉴질랜드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러시아·북한 .. 아시아 전 지역 통합

아시아는 '모래알'과 같다. 문화·경제·정치적으로 유사한 유럽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국가들 간의 공통된 부분으로 연합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이를 인정한 채로 연합체를 만들려다 보니, 회원국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전 지역을 포괄한다. 그러나 범위가 넓다 보니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져, 'OPA 아시아'의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재 중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의 부상과 아시아 연합에 반대하는 세계 강대국들의 방해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우려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연합의 순서와 'OPA 아시아'를 이루어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OPA의 연합 순서를 살펴보자. 먼저, 아시아 주요국가인 ANEAN(동북아시아)과 ASEAN(동남아시아)을 결합하여 연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문제(식민지, 영토 분쟁 등)로 뒤엉켜 있는 중·일과 ASEAN의 사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적 사이가 좋은 한국이 교두보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합의 기초가 마련되고 나면, '중국'의 독자적인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아시아 연합에서 G2로 떠오른 중국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리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와 가까운 호주·뉴질랜드와 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은 아시아 연합 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아시아와 아시아 밖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ASEAN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입하려 했던 때의 경험을 미루어보아, 중국은 이들 국가의 가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를 아시아 연합국으로 가입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연합이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국제 사회 논란의 중심으로 거론되는 서아시아와 러시아, 마지막으로 북한의 가입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논란 국가'들을 아시아 연합이라는 공동체에 포함시켜, 그 논란들을 협상 테이블로 꺼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그들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논란 국가들과의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어 아시아 연합의 목표인 역내 평화 및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2. 아시아 연합의 구조

2-1. 아시아 연합의 리더를 정하는 기준

아시아 연합의 리더는 상임의장(대내리더)과 외교대표(대외리더)로 총 2명이다. 이들은 상임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자국의 대표를 상임의장 또는 외교대표의 후보로 추천하기 원하는 국가는,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문화진흥기구 · 경제개발기구 · 안보협력기구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국가 ② 연합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 ③ 연합 회원국 들을 중재할 수 있는 국가 ④ 문화 사업에 GDP대비 0.3%¹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국가 ⑤ GDP가 4조 달러² 이하인 국가. 위 조건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준 ①은 리더의 국가가 연합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야, 리더가 연합 전체에 대한 정보와 대표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준 ②와 ③은 리더가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연합국들을 중재해야, 즉 연합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연합국 모두가 존중되는 하나(One)의 평화로운(Peace) 동반성장(Accompany growth)'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준 ④와 ⑤는 리더가 연합의 사업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의 출신이어야,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적고 연합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면에, 자국의 경제력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국가의 출신이어야, 연합이 한 국가에 편중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위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연합국만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할 수 있고, 추천 받은 후보들은 추천을 통해 두 명씩 러닝메이트로 지정된다. 그 이후, 이들은 상임이장과 외교대표의 역할을 분담하여 선거유세를 하고, 상임이사회의 나머지 연합국 대표들은 투표로 대표부 리더를 선출한다.

2-2. 아시아 연합의 의사 결정 기관과 구조 / 각 기관의 기능과 의의



아시아연합의 의사결정 기관과 구조

먼저 **상임이장과 외교대표**는 몇 가지 권리를 가지고 아시아 연합을 총괄·대표하는 기능을 한다. 이들은 연합체의 효율적인 대내외 결정과 두 리더 국가 사이의 화합을 위해 중요하다. 다음으로 문화진흥기구, 경제개발기구, 안보협력기구는 각각 산하에 상임이사회, 각료이사회, 사무국을 둔다. **상임이사회**는 해당 분야 연합국의 대통령으로 구성되고 안건을 결정한다. **각료이사회**는 장관급 대표 1인씩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총괄한다. 그리고 **사무국**은 아시아연합국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실무를 처리한다. 각 기구의 기능과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째로 **문화진흥기구**는 Kid's Asian Union(아시아 청소년 연합)과 Dream Train of One Asia(아시아 관광 열차 사업) 사업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추후, 전면적인 아시아 연합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경제개발기구**는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기금 조성, 투자·대출 등의 기금관리 등을 한다. 이는 DTOA의 관광 수입, 자연재해와 테러 대비 훈련 및 긴급구호를 위한 비용 등, 아시아 연합의 전반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안보협력기구**는 평상시에는 자연재해와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과 매뉴얼 개발을 하고, 자연재해 또는 테러 발생 등 긴급 시에는 피해지역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한다. 이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협력 대응하여, 문제해결 효과를 상승시키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는 연합 기구의 대내결정, 대외활동, 문화·경제·안보 부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각 부서에 자문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법재판소**는 각 국가 또는 기관이 아시아 연합의 가치관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부적절한 운영을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들은 각각 하나(One)의 평화로운(Peace) 동반성장(Accompany Growth)이라는 아시아 연합의 가치관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¹ GNI 대비 ODA 비율 참고, 세계 평균 0.31% → 반올림: 0.3%

² 아시아 최고 GDP (중국) + 아세안 최저 GDP (라오스) / 2 = 3,663,398,467,255.19 → 반올림: 4조

3. 아시아 연합의 필요와 실현가능성

OPA 아시아 연합은,

- ① 아시아를 대표하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세력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 ② 개성이 강하고 역사적으로 엉켜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를 추구하도록 하여 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
- ③ 각국의 반인륜적인 문제들을 공론화하여 아시아의 질적이고 심층적인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
- ④ 자연재해, 테러위협 등 국제사회가 직면해 있는 위협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⑤ 아시아 국가들의 동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최근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강점을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EAFTA (ASEAN + 3) 회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끌어가려 노력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G1 국가인 미국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의식해서인지 그들의 관심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회귀시켰다(Back to the Asia).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시, 중국을 고립시키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극대화 시키려는 Back to the Asia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G2의 Power Game 무대가 아시아라는 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개별성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이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미국과 중국의 세력 다툼이 심화 될 수록 아시아 각 국의 외교 전략이 혼선을 빚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OPA 아시아 연합의 결성은 중국과 미국의 ‘독대’를 막을 수 있고, 연합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진정시키고 연합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진정시켜, 국제 사회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편, 아시아 연합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경제 수준 차이가 극심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가 있고, 정치면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존재한다.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언어와 종교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산다. 또한 식민 지배의 악몽, 독도·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 등 각 국가 간의 역사적 앙금도 적지 않다. 혹자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아시아 연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아시아 지역은 끊임없이 시끄러울 것이다. 이들의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줄 촉매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OPA 아시아 연합이다.

다음으로, OPA아시아 연합은 각국의 반인륜적인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 불법 채류, 마약 거래, 인육 매매 등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상재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들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 사회까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범죄들이 개별 국가차원에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국가주권을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상 타국의 개입을 거부하고, 해당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범죄의 사실을 목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시아연합이 만들어지면, 연합이 해당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것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③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 질적이고 심층적인 평화를 실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시아 연합의 필요성은 이 뿐 만이 아니다. OPA 아시아 연합은 지진·쓰나미·사막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테러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은 아시아에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시아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연합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합이 ‘동반 성장’을 야기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EU나 ASEAN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 연합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맨큐의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안보 분야에서부터 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탄탄한 경제적 협력까지 이룬다면,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시아 연합은 더 이상 단순히 꿈이 아니다. 이미 아시아 국가들은 연합의 필요성을 깨닫고 결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남아시아 지역연합(SAAR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 경제협력체(EAEC),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SCWA)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이유로 연합의 가치를 깨닫고 주변 국가와 연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연합은 개수만 많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연합은 많지 않다. 또 결속력과 대표성이 약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아시아 연합은 꼭 필요하다. 연합을 구성하는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개성 강한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OPA’에 근거한 아시아 연합체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이무성 외. (2012). 유럽연합의 정체성 II. 높이깊이.
- Gregory Mankiw. (2009).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역). 교보문고.
- Masahiro Kawai, Ganeshan Wignaraja. (2009). Asian FTAs: Trends and Challenges (pp. 9-11). Asian Development Band Institute.
- Dario Velo. (1998). The Cost of Non Europe (p. 104). The Federalist.
- 매일경제. 호주-뉴질랜드 끌어들이 중재지역 맡겨야. 2012년 9월 5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2431224>
- 매일경제. 한-중-일 통합, 이해 충돌 않는 쉬운 분야부터. 2012년 9월 5일 검색,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78270>
- 한국아이닷컴. [한·미 FTA] 아시아에 'FTA 열풍'. 2012년 9월 10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1&aid=0000177257>
- 한겨레. 중, 한국과 FTA 왜 강하게 요구?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견제 노려. 2012년 9월 10일 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8&aid=0002126039>
- 아시아경제. 유럽, 다음은 은행동맹이다. 2012년 9월 16일 검색,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91510211454390>
- 경향신문. EU 집행위원장 “유럽연합 넘어 유럽연방 추진을”. 2012년 9월 16일 검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32132225&code=970205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앙아시아 교역, 2020년 11조원 넘어설 듯. 2012년 9월 18일 검색,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48791>
- 한국국방연구원 WoWW. 아시아 분쟁현황. 2012년 9월 19일 검색, <http://www.kida.re.kr/woww/dispute.asp?code=ASA>
- 외교통상부. ASEAN 방식(ASEAN Way): 서로 간섭하지 않는 공동체?. 2012년 9월 21일 검색, http://news.mofat.go.kr/enewspaper/subarticle/pre_print_article.php?paid=3639
- World Bank. Asia GDP. 2012년 9월 28일 검색, <http://search.worldbank.org/data?qterm=aisa+gdp+statistic>
- 네이버 블로그. ODA현황. 2012년 9월 28일 검색, <http://1930song.blog.me/40073930182>